

인문계열 [문제 1] 해설 및 모범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문 (나), (다), (라)를 활용하여 유추하십시오. (50점, 750±50자)

(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 임금을 100%로 볼 때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61.3%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2011년에는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은 62.1%였는데, 1년 사이 양성 간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통계청에서 201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 경제 활동 인구는 약 82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 인구(2,511만 7천 명)의 3.2%를 차지한다. 이들 중 임금 근로자의 75%가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같은 시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43만 원으로 외국인 임금 노동자에 비해 약 43만이 더 많다.

(나)

누구나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이 많지만,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켜 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시켜 줄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가리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며, 이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어떤 재화 혹은 서비스는 존재량이 인간의 욕구보다 많아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무상재 또는 자유재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햇빛, 공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희소성이 존재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경제재라고 한다.

그런데 희소성은 단지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희소성의 경제적 가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는 딸기가 바나나보다 적게 재배되어 상대적으로 구하기 힘든 과일에 속하지만, 딸기보다 바나나가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희소한 재화는 더 적게 생산되는 딸기가 아니라 더 많이 생산되지만 더 비싸게 거래되는 바나나라 봐야 한다. 이처럼, 재화의 존재량이 적다고 하여 반드시 그 재화의 희소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희소성은 원하는 양과 존재하는 양 사이의 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며 원하는 정도는 사람들이 지지는 욕구와 필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 가격에서 소비하려는 구체적 소비 계획량을 수요량이라고 하고, 모든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 계획 전체를 수요라고 한다. 그리고 이 소비 계획 전체를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이다. 한편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특정 가격에서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공급 계획량을 공급량이라고 하며, 모든 가격에서의 생산자들의 공급 계획 전체를 공급이라고 한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공급 곡선이다.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즉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에 도달한 상태를 시장 균형이라고 한다.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가격 수준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 이때는 공급자 간의 경쟁으로 균형 가격까지 가격이 하락한다. 반대로 가격 수준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 상태가 되고, 수요자 간의 경쟁으로 균형 가격까지 가격이 상승한다.

(라)

이미 19세기 말부터 여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1920년대 남성 독자 대비 여성 독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1930년 당시 우리나라에서 한글과 일본어를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1.9%이었으며, 한글 또는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여성은 10.5%에 머물렀다. 게다가 특별한 부호(富豪)* 가정에서 편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여성은 책 읽을 틈도 낼 수 없는 형편이 대부분이었다. 1910년대와 1920년대 초의 여성 독자는 곧 극소수의 초기 신여성, 여자 유학생을 의미하였다.

여성의 책 읽기를 가능하게 한 본격적인 양성 평등, 인간 평등 시대의 개막은 누구보다도 조선 여자에게 더할 수 없는 행운이 돌아온 기회이기도 했다. 1919년 OO일보는 여자가 도서관에 많이 출입하며 공부하는 일을 두고 '최근의 기이한 사회적 현상'이라 했다. 결국 여성의 책읽기는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뚜렷한 지표였다. 여성은 '식민지 속의 식민지'였던 존재였기 때문에 여성 독서의 양상은 심각한 여성 내부의 모순과 함께 식민지 전체의 중첩된 모순을 상징한다. 유·무식의 문제에 있어 여성 내부의 불균등·불평등은 남성 내부의 계급적 차이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1920년대 초 신문과 잡지에는 일본 또는 서구에 유학을 다녀온 극소수 여성이 주역(主役)으로 등장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와 신문 기사가 넘쳐났다. 이미 1924년에 이르면 민간 신문의 '가정'면이 독립하여 여성 독자를 끌고자 하였다. 그러나 1929년, 오늘날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공·사립 여자고보(女子高普)에 입학한 여성은 조선 전체에서 1,465명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다수의 여성은 책 같은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럼에도 여성의 무지(無知)는 남성의 그것처럼 최악이나 수치로 여겨졌다. "문맹이며 돈과 시간이 없어도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역설적인 권고가 계속되었다.

*부호(富豪): 재산이 넉넉하고 세력 있는 사람.

■ 출제 의도

문제 1을 출제한 의도는 집단 간 차이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경제적 관점과 사회갈등적 관점)을 다룬 지문을 읽고, 이를 요약하고 논리적으로 종합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임.

■ 문항 해설

- 이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목격할 수 있는 집단 간 차이 중 하나인 임금격차(남성 대 여성, 내국인 대 외국인)의 원인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문을 통해 추론해 내고, 각 원인의 차이를 분명하게 요약하고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임.
- 제시문 (가)는 교과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발췌한 내용임. 두 개의 교과서에서 각각 한 단락을 발췌했는데 각각의 교과서는 모두 공인된 기관의 사회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공통적으로 집단 간 임금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이 내용은 고등학생들이 <사회·문화> 교과서의 ‘차별과 불평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내용임.
- 제시문 (나)는 <경제> 교과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희소성에 관한 내용을 발췌 후 운문한 내용임. 이 제시문에서 희소성에 따라 임금에 대한 대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제시문 (다)는 <경제> 교과서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내용을 일부 발췌 후 재구성하고 운문한 내용임. 이 제시문에서 임금이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결정됨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집단 간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임금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제시문 (라)는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실려 있는 천정환의 ‘근대의 책 읽기’의 일부분을 운문 없이 그대로 발췌한 내용임. 이 제시문은 책 읽기 교육과 관련하여 192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 차별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음. 이 내용을 통해 동일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우의 차이가 집단 간 임금 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채점 기준

- 1) 제시문 (가)에서 공통점 파악: 집단 간 임금 격차 (10점)
 - 두 조사 결과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능력 측정
- 2) 제시문 (나)를 통해 임금 격차 원인 추론 (10점)
 - 각 집단이 제공하는 노동의 희소성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명시
- 3) 제시문 (다)를 통해 임금 격차 원인 추론 (10점)
 - 노동을 제공하는 집단의 수의 차이로 인해 임금의 균형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명시
- 4) 제시문 (라)를 통해 임금 격차 원인 추론 (10점)
 - 제공하는 노동의 댓가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불평등하고 차별적일 수 있음을 명시
- 5) 글쓰기 능력: 문장간 연결의 자연스러움 (5점)
 - 각 집단이 제공하는 노동의 희소성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명시
- 6) 분량의 준수 여부 (5점)

■ 예시 답안

제시문 (가)에서는 2012년에 조사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두 조사결과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상은 집단 간 평균 임금의 격차인데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평균 임금이 높다. 이와 같은 임금 격차의 원인을 각각의 제시문을 통해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문 (나)는 재화와 서비스의 희소성이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구체적인 노동의 희소성의 차이가 임금 격차의 원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희소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남성과 내국인이 제공하는 노동이 여성과 외국인이 제공하는 노동에 비해 보다 희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시문 (다)는 공급량과 소비량의 균형이 깨졌을 때 가격이 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량에 비해 여성과 외국인이 제공하는 노동의 공급량이 남성과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유추할 수 있다. 즉 공급 과잉으로 인해 여성과 외국인의 노동에 대한 시장 가격이 하락한 탓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적으로 문자 교육의 기회를 적게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별이 노동 시장에도 적용될 때 집단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여성과 외국인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동일한 노동을 제공한 남성과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786자)

인문계열 [문제 2] 해설 및 모범답안

[문제 2]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38명 목격자의 행동을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가)의 밑줄 친 책임 전가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1964년 3월 13일 새벽 3시 15분, 미국 뉴욕의 주택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자신이 지배인으로 일하던 술집에서 야간 당번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녀가 차를 주차하고 밖으로 나오자 수상쩍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 남자는 그녀의 등에 칼을 찔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칼로 날 찔렀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주차장 주변 집들에 불이 켜졌다. 어떤 사람은 측은한 마음에 “그 여자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소리쳤다. 그때 범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주차장 주변 집들의 불은 다시 꺼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가던 범인은 거리가 조용해지고 창문이 어두워지자 범행을 마저 끝내기로 하였다. 제노비스는 다시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다. 아파트에서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다시 도망갔다. 제노비스는 간신히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이 있는 아파트 건물 복도안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하지만 몇 분 후에 또다시 남자가 찾아와 범행을 끝내었다. 이 사건은 새벽 3시 15분에서 50분까지 약 35분동안 일어났다. 그 긴 시간 동안 여성이 칼에 찔리고 쓰러지는 것을 본 목격자가 38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모두 창가에서 구경만 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건 직후 경찰은 목격자를 한 사람씩 불러서 심문하였다.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은 “다른 누군가가 도와 줄 거라 생각했다” 였다.

(나)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중용이자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과도함과 부족함은 악덕의 특징이요, 양 극단 사이에 적절함을 선택하는 중용이 품성의 덕이 갖는 특징이다. 이때의 적절함이란 1과 5사이의 중간이 3인 것처럼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중용은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사람에게는 한 끼 식사로 한 공기의 밥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굶은 사람에게서는 두 공기 혹은 그 이상의 밥이 중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적절함에 대한 오랜 경험과 훈련, 그리고 꾸준한 배움을 통해 중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인 삶은 중용을 찾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과 더불어 실천 의지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예컨대 어린 아이는 올바른 행동을 정확하게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어린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무지가 그 원인일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의 행동도 모두 무지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의 경우 의지의 나약함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이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없듯이 인간의 내면에서 우리나라와 스스로 명령하는 도덕법칙 또한 거스를 수 없다. 그것은 자연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율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의지 그 자체로 도덕법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율적이면서 도덕적인 의지로 선의지를 제시하였다. 선의지란 도덕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인 동시에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의지이다. 또한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선이다. 선의지에 따른 행위는 단순히 좋은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도덕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순수한 의무 그 자체에 대한 동기에서 우리나라오는 행위이다. 도덕적 의무는 다른 동기가 아닌 오로지 의무 자체를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의무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필연성을 의미한다.

칸트는 행위자가 자기 이익을 얻고자 행동하거나 다른 어떤 결과를 예상하여 행동하고, 아니면 행위자의 감정 또는 경향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예컨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였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에서 그를 도왔을 경우에도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결과를 고려하거나 감정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것 일뿐, 순수한 도덕적 의무감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

서양의 덕 윤리는 선한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덕한 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덕을 습관화하여 덕을 지닌 사람이 되었을 때 선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 윤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추상적인 도덕 원리보다는 덕을 함양한 사람이 하는 판단과 행위 실천에 더 관심을 두며, 덕을 함양한 사람의 내적 특성, 성향, 동기 등과 같은 행위자의 성품에 주목한다. 또한 덕 윤리는 당면한 윤리 문제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품성은 공동체나 인간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탁월한 품성으로 파악된다. 덕 윤리는 이러한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거나 연마하는 좋은 방법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라고 제안한다.

동양의 유교 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강조하는 도덕 지향적인 특징을 보인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누구든지 노력하면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도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유교에서는 “이익이 될만한 일을 보거든 그것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건리사의(見利思義)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이로움보다는 옳바름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더 중시하였다. 행위에 있어 이익을 판단하기 전에 항상 옳은 일인지를 살피라는 것이다.

한편,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일정한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연기(緣起)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본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생각, 태도, 행동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불교의 자비 사상에 따르면 우리가 우주 만물이나 타인과 불가피한 인과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상호의존성을 철저히 깨달을 때, 자기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남의 슬픔도 같이 슬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비의 마음이 나타난다. 자비의 마음은 타율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 출제 의도 & 문항 해설

- 도덕적 해이와 도덕적 실천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천 윤리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본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 과목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도덕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대 사회의 윤리적 가치와 실천 윤리의 개념을 논제로 삼아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제했다.
- 본 문제의 취지는 제시문 (가)의 도덕적 책임 전가 현상을 제시문 (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론과 제시문 (다)의 칸트의 의무론적 도덕론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가)의 책임 전가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라)의 서양의 덕 윤리, 동양의 유교와 불교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제시문 (가)는 뉴욕의 한 살인 사건에서 나타난 목격자들의 방관과 책임 전가 현상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중 품성의 덕 윤리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제시문 (다)는 칸트의 의무론적 도덕론으로 도덕법칙의 의무와 이를 따르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이며 도덕적 주체인 인간의 선의지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 (라)는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관점으로 서양의 덕 윤리와 동양의 유교 및 불교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서양 공통적으로 도덕적 실천 의지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능력, 제시문 (나)와 (다)의 핵심 내용을 적용하여 제시문 (가)의 책임 전가 현상의 윤리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 제시문 (라)의 논제에서 제시문 (가)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통합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 채점 기준

* 아래 ①~⑤의 각 항목당 최대 10점씩, 합계 50점

- ① 제시문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목격자의 책임 전가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각각 5점씩 최대 10점.
- ②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책임 전가 현상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③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책임 전가 현상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④ 제시문 (라)의 서양의 덕 윤리, 동양의 유교 및 불교 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도덕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⑤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
- ⑥ 총 글자 수 600-700자는 5점 감점
- ⑦ 총 글자 수 500-600자는 10점 감점
- ⑧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최대 20점 이하 점수 부여

■ 예시 답안

제시문 (가)는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살해당하는 동안 38명의 목격자가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에 아무도 그 여성을 돕지 않는 책임 전가의 현상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라는 품성의 덕을 깨달을 것을 강조하며, 도덕적인 삶에는 중용과 더불어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목격자들이 책임 전가의 행동을 보인 것은 실천 의지의 나약함에 기인한다.

제시문 (다)에서 칸트는 인간의 내면에는 자연법칙과 같이 거스를 수 없는 도덕법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며 도덕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인 선의지가 있는데, 그 행위는 도덕적 의무 자체에 대한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목격자들의 행위는 실천 이성이 부과한 도덕적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며, 목격자중 동정심에서 소리친 사람의 행위조차도 도덕적 의무에 따른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다.

책임 전가 현상의 해결을 위해 제시문 (라)에서 동서양 모두 덕 행위의 실천과 관계의 중요성 인식을 강조한다. 서양의 덕 윤리는 유덕한 성품의 함양과 덕 행위의 실천에 주목함과 동시에 당면한 윤리 문제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동양의 유교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가르침을 통해 이로움보다는 올바름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며, 불교는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성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기 법칙의 깨달음을 통해 타인의 소중함과 감정을 이해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799자)